

# 상승세 탄 NC의 진격... '6월 승률 최하위' 롯데의 위기

NC, 'SSG·LG·롯데' 3강 구도 깨고 3위 진입

초반 돌풍 일으킨 롯데, 4위 밀려나 시즌 첫 위기

'공룡'의 진격이 심상치 않다. NC 다이노스가 상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NC는 지난 11일 선두 SSG 랜더스를 8-4로 제압하며 5연승 행진을 벌였다. 동시에 시즌 31승(24패)째를 수확, 3위로 도약했다.

NC는 6월 들어 승률 1위(0.889)를 달리며 본격적인 승리 사냥에 나서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LG 트윈스에 3연전 싹쓸이 승리를 거두더니 지난 주말(9~11일)에는 SSG와의 시리즈를 스윙했다.

상승세를 탄 NC는 상위권 판도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NC가 3위에 진입하면서 4월 말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SSG(35승1무21패), LG(34승2무23패), 롯데(30승24패)가 유지해온 '3강 체제'도 깨졌다.

지난달 3일만 해도 6위에 머물렀던 NC는 이제 1위 경쟁까지 낚는다. 1위 SSG와는 3.5게임차, LG는 2게임 차로 추격 중이다.

NC는 이번 주 중 두산 베어스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주말에는 광주로 이동해 KIA 타이거즈와 만난다.

NC에 3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밀려나 롯데는 시즌 초반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6월 승률이 최하위(0.300)에 그치는 등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리드를 빼앗겨도 끝까지 포

기하지 않고 상대를 압박하는 힘은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그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패배만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5위 두산 베어스(28승1무26패)에도 2게임 차로 쫓기는 처지다.

시즌 첫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올 시즌 명운이 갈릴 수 있다. 자칫 부진한 흐름이 더 길어질 경우 순위 싸움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롯데는 이번 주 한화 이글스에 이어 SSG를 만난다.

상위권보다 더 촘촘하게 붙어있는 하위권 경쟁도 뜨겁다.

8위 키움(25승1무34패)에 9위 KT 위즈(22승2무32패)가 0.5게임 차로 따라붙었고, 10위 한화(21승3무33패)는 그 뒤를 1게임 차로 추격 중이다.

개막 전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최하위까지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 리그 NC다이노스와 LG트윈스의 경기, 3대 1로 NC다이노스의 승리, NC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떨어졌던 KT는 6월 승률 2위(0.677)에 오르며 반등을 노리고 있다.

뉴스

## 키움 이정후, 올스타 팬투표 1차 집계 1위...롯데 10명

1차 중간집계 총 투표수 96만5475표...작년 대비 62% 증가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딛고 최근 반등에 성공한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가 올스타 팬 투표 1차 집계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2023 신한은행 쏘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 1차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나눔 외야수 부문 이정후는 50만2241표로 전체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전체 96만5475표 중 과반이 넘는 52%의 득표율이다.

2017년 프로에 데뷔한 이정후는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면 개인 6번째 올스타전 출전의 영광을 안게 된다.

올해 타격폼을 바꾸며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던 이정후는 최근 들어 제 모습을 되찾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0.500(38타수 19안타)을 때려내는 등 시즌 타율 0.304로 3할 타율까지 회복해 '올스타다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

1차 중간집계 최다 득표 2위는 드림 지명 타자 부문 전준우(롯데 지아인트스)가 차지했다.

전준우는 47만8173표를 받아 2만4068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정후를 추격하고 있다. 전준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번 베스트12에 선정된 바 있다.

최근 몰운은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는 전준

우는 10년만의 베스트12 입성에 도전한다.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킨 롯데는 올스타 팬투표에서도 엄청난 기세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롯데는 드림 올스타 10개 부문에서 1위를 점령하고 있다. SSG 랜더스 최경과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이 각각 3루수, 외야수 한 자리를 차지해 롯데의 싹쓸이를 막고 있다.

선발투수 부문에서는 드림 올스타 롯데 박세웅이 39만3621표로 해당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양현종은 38만3083표로 2년 연속 나눔 올스타의 선발투수 자리를 노린다.

현재 순위가 최종집계까지 유지된다면 각 팀의 '안경 에이스' 매치가 성사된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반영된 올해 1차 중간집계는 총 투표수 96만5475표로, 전년 1차 중간집계(60만1701표) 대비 약 62% 증가했다.

KBO는 팬 투표에 참여하는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BO 홈페이지 혹은 KBO공식 앱을 통해 매일 투표에 참여한 팬 중 3명을 추첨해 에어팟 맥스(무선 헤드폰), 네스프레소 스테인리스 스틸 커피머신, 삼성 프리스타일 플러스(빙 프로젝트) 등을 증정한다.

2023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12를 뽑는 팬 투표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2차 중간 집계 결과는 19일 발표된다. 팬 투표(70%)와 선수단 투표(30%) 결과를 합산한 최종 베스트12 명단은 26일 발표된다.



## 김은중호, 이스라엘에 져 U-20 월드컵 4위

3·4위전서 1-3 패배...'주장' 이승원, 이번 대회 '3골 4도움' 최다 공격포인트

김은중호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이스라엘에 패해 최종 4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스라엘과의 2023 U-20 월드컵 3·4위전에서 1-3으로 졌다.

한국은 이탈리아와의 준결승전에서 1-2로 져 역대 최고 성적을 낸 2019년 폴란드 대회(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회 첫 3위 입장을 노렸지만, 이스라엘에 져 최종 4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은 성인 또는 연령대별 FIFA 월드컵 3위 결정전에서 첫 승리를 노렸으나, 아쉽게 실패했다.

2002 한일월드컵 때 성인 대표팀은 튀르키예에 져 4위에 그쳤고, U-20 월드컵 전신인 1983 세계청소년대회 3위 결정전에서도 폴란드에 패했다.

다만 2012 런던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던 당시 대표팀이 일본을 2-0 이긴 적은 있다.

이스라엘전은 2021년 12월 김은중 감독 부임으로 U-20 월드컵 준비를 시작한 대표팀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했다.

스타플레이어가 없어 무관심 속에 시작한 이번 대회에서 김은중호는 '2회 연속 4강 진출'이란 성과를 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승 후보로 평가받은 프랑스를 2-1로 누르며 출발한 한국은 조 2위(1승2무)로 16강에 올랐다. 이어 16강 예과도(3-2 승), 8강 나이저리아(1-0 승)를 연달아 잡고 4강까지 진격했다.

김은중 감독은 4-1-4-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 이영준(김천)을 중심으로 2선에는 배준호(대전), 강상윤(전북), 이승원(광원), 이지한(프라이부르크)을 배치했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이찬욱(경남)이 나섰다. 포백 수비는 박창우(전북), 최석현(단국대), 김지수(성남), 배서준(대전)으로 구성됐다. 골키퍼 장갑은 김준홍(김천)이 썼다.

이탈리아와 4강전과 비교해 이지한, 이찬욱, 배서준, 박창우 4명이 바뀌었다.

초반부터 팽팽한 기 싸움이 전개된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른 측면 돌파로 균형을 깼다.

전반 19분 합자 시블리가 왼쪽 측면을 허무히 울린 크로스를 반대편에서 란 빈야민이 몸을 날리는 오른발 발리슛으로 선제골을 터트렸다.

하지만 반격에 나선 한국이 빠르게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배준호가 이승원의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려는 순간 이스라엘 수비수 라이 페인폴드의 반칙에 넘어지면서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한국은 '주장' 이승원이 키커로 나서 오른발 슛으로 정확히 차 넣었다.

이번 대회 3골 4도움을 기록, 7번째 공격포인트를 쌓은 이승원은 4년 전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마요르카·2골 4도움)의 기록을 넘어섰다.

한국이 먼저 교체 카드를 꺼냈다. 부상을 입은 이지한을 불러들이고, 강성진(서울)을 투입했다.

이스라엘의 공세에 위기도 있었지만, 한국은 김준홍 골키퍼의 선방으로 전반을 1-1로 마무리했다.

후반 초반에도 이스라엘의 매서운 공격이 이어졌다. 후반 11분에는 란 빈야민의 왼발 발리슛이 빗나갔고, 17분에는 김준홍 골키퍼의 선방으로 실점을 면했다.

또 후반 25분에는 교체로 들어온 이스라엘 공격수 오메탈 세니오르가 골망을 갈랐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한국은 그사이 김용학(포티모네세), 황인택(서울이랜드)을 동시에 투입하며 스태블 전술로 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오히려 측면을 내주면서 이스라엘에 연속 실점했다.

후반 31분 아난 칼라일리의 크로스를 쇄도하던 세니오르가 오른발 논스톱 슛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터트렸다.

기세가 오른 이스라엘은 후반 40분 코너킥 찬스에서 칼라일리가 추가골을 기록하며 쐐기를 박았다.

한국은 끝까지 이스라엘 골문을 두드렸지만, 추가골에 실패하면서 1-3으로 경기를 마쳤다.

한편 U-20 월드컵을 최종 4위로 마친 김은중호는 14일 귀국한다.

뉴스

## '배드민턴 1위' 향하는 안세영...대관식은 AG? 올림픽?

싱가포르오픈 우승...올해 우승만 5번째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21)이 여자 단식 세계 정상에 향해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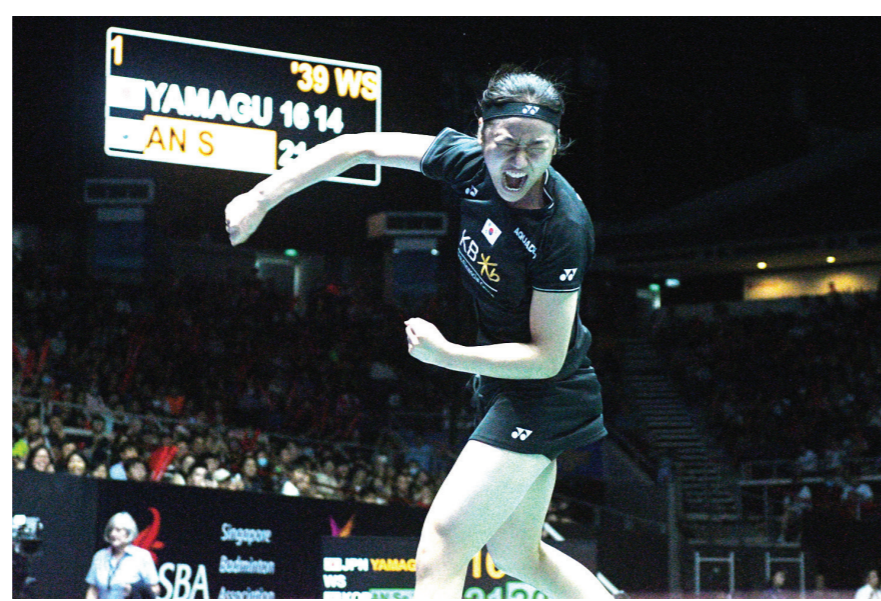
여자 단식 세계 2위 안세영은 지난 11일(한국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1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0(21-16 21-14)으로 완파했다.

이번 결승전은 예전 맞대결과 달랐다. 안세영은 그간 야마구치의 빠른 공격에 휘둘리며 연속 실점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안세영이 야마구치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완급 조절과 경기 운영 면에서 한층 성장한 안세영은 체력조건과 신체 능력 면에서도 야마구치를 압도하며 여유 있게 승리를 따냈다.

이로써 안세영은 올해 5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은 올해 이어진 개인전 7개 대회와 세계단체선수권 등 모두 8개 대회에서 모두 결승에 올랐다. 안세영은 이 가운데 1월 인도 오픈과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3월 최고 권위 전영오픈, 6월 태국오픈과 싱가포르오픈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안세영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인도네시아 오픈을 통해 동남아 순회 대회 일정을 마무리



안세영이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체육관에서 열린 2023 싱가포르 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꺾고 우승을 확정 지은 뒤 기뻐하고 있다.

한다. 안세영이 이 대회까지 휩쓸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이다. 안세영이 9개 대회 연속 결승 진출과 올해 6번째 우승, 그리고 3주 연속 우승을 달성할지 주목된다.

안세영이 랭킹 포인트를 쌓아간다면 야마구

치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수도 있다.

아울러 안세영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다.

안세영을 비롯해

여자 단식 세계 4강으로 꼽히는 선수들 중에서는 타이쯔잉(대만)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천위페이(중국)가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바 있다. 안세영과 야마구치는 아직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